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7년 8월

교육학석사(체육교육)학위논문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판정과 자기관리,
중도포기의도의 관계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김 미 소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판정과 자기관리,
중도포기의도의 관계

The Relations between Referee Judgment Perceived
by Taekwondo Athletes, Self-Management, and the
Intention to Give up in the Middle

2017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김 미 소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판정과 자기관리,
중도포기의도의 관계

지도교수 이 계 행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체육교육) 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김 미 소

김미소의 교육학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경 채훈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영민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계행 인

2017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론	1
A. 연구의 필요성	1
B. 연구의 목적	4
C. 연구문제 및 가설	4
D. 연구모형	5
E. 연구의 제한점	5
II. 이론적 배경	6
A. 심판판정	6
1. 공정성	6
2. 신속성	7
3. 일관성	7
4. 신뢰성	8
B. 자기관리	9
1. 운동선수의 자기관리	9
C. 중도포기의도	11
1. 운동선수의 중도포기	11
III. 연구방법	14
A. 연구대상	14
B. 조사도구	15
1. 심판판정	15

2. 자기관리	18
3. 중도포기의도	21
C. 조사절차	22
D. 자료처리	23
IV. 연구결과	24
A. 집단 간 차이	24
1. 성별에 따른 차이	24
2. 소속에 따른 차이	26
B. 심판판정과 자기관리, 중도포기의도의 관계	28
1. 변인 간 상관관계	28
2. 심판판정과 중도포기의도	30
3. 심판판정과 자기관리	31
4. 자기관리와 중도포기의도	35
V. 논의	36
A. 집단 간 차이	36
B. 심판판정과 자기관리, 중도포기의도의 관계	37
VI. 결론	40
A. 집단 간 차이	40
B. 심판판정과 자기관리, 중도포기의도의 관계	40
참고문헌	42
부록	47

표 목 차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4
표 2. 심판관정에 대한 설문지 구성	15
표 3. 심판관정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6
표 4. 심판관정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18
표 5. 자기관리에 대한 설문지 구성	18
표 6. 자기관리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9
표 7. 자기관리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20
표 8. 중도포기의도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결과	21
표 9. 성별에 따른 심판관정 차이결과	24
표 10. 성별에 따른 자기관리 차이결과	25
표 11. 성별에 따른 중도포기의도 차이결과	25
표 12. 소속에 따른 심판관정 차이결과	26
표 13. 소속에 따른 자기관리 차이결과	27
표 14. 소속에 따른 중도포기의도 차이결과	28
표 15. 측정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	29
표 16. 심판관정에 대한 인식이 중도포기의도에 미치는 영향 결과	30
표 17. 심판관정에 대한 인식이 몸관리에 미치는 영향 결과	31
표 18. 심판관정에 대한 인식이 대인관리에 미치는 영향 결과	32
표 19. 심판관정에 대한 인식이 훈련관리에 미치는 영향 결과	33
표 20. 심판관정에 대한 인식이 정신관리에 미치는 영향 결과	34
표 21. 자기관리가 중도포기의도에 미치는 영향 결과	35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5
그림 2. 운동선수들의 자기관리 개념 모형	11
그림 3. 조사절차	22

ABSTRACT

The Relations between Referee Judgment Perceived by Taekwondo Athletes, Self-Management, and the Intention to Give up in the Middle

Kim Mi-So

Advisor : Prof. Gyaе-Haeng, Lee, Ph.D.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relation between referee judgment perceived by Taekwondo athletes, their self-management, and their intention to give up in the middle. To achieve that, this researcher looked into 218 athletes registered in Korea Taekwondo Association in 2017 as a population. The collected data were applied to t-test and one-way ANOVA. To find Multicollinearity problem for the relations between measurement variable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influential relations between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analyse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with regard to the difference by age, male athletes more highly perceived the fairness, consistency, and reliability of referee judgment than female ones, and the intention to give up in the

middle was highly perceived by female athletes.

Secondly, with regard to the difference by organization, high school athletes and university school athletes more highly perceived the reliability of referee judgment than general athletes. The inter-personal management of self-management was more highly perceived by general athletes than by university athletes. The intention to give up in the middle was more highly perceived by university athletes than by general athletes.

Thirdly, the more Taekwondo athletes perceived the consistency of referee judgment, the less they had the intention to give up in the middle.

Fourthly, the more Taekwondo athletes perceived the consistency of referee judgment, the more they increased the body management, interpersonal management, training management, and mental management of the self-management. It was found that when they highly perceived immediacy, they increased interpersonal management.

Fifthly, the more Taekwondo athletes increased the interpersonal management and mental management of the self-management, the more they reduced the intention to give up in the middle.

I.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지난 2013년 5월에는 스포츠계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태권도 경기에서 승부조작의 피해를 입은 아버지가 억울함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불공정 관행과 비리를 척결한다고 밝혔으나, 승부조작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정책브리핑, 2014.09.16.; MBN뉴스, 2014.09.23.; TV조선, 2014.10.30.).

심판은 경기에 필요한 이론과 제반기능을 바탕으로 자신이 맡은 경기에서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이 발휘되도록 유도하고, 공정한 여건 하에서 승패를 가릴 수 있는 기본 소양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윤병인, 2014). 이러한 관점에서 스포츠현장에서의 오심은 실수지만 조작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고의성이 매우 짙다. 따라서 심판관정과 관련된 연구가 많은 종목에서 수행되었으며, 선수들은 판정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거나 심판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용수, 2010; 김희중, 2000; 정말순, 2000; 정청희, 홍길동, 2002; 이재경, 이주형, 2008; 조명준, 2009). 특히 선수들이 예측하지 못한 판정오류는 부정적 정서를 촉발하여 경기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었다(조명준, 2009; 한기훈, 이진성, 2004). 즉,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갈등과 불안, 부담, 낮은 자존감 등 부정적 심리적 상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탈진, 이탈, 중도포기의 원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운동선수들이 중도포기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탈퇴동기와 관련한 국외의 초기연구에서는 흥미의 변화, 일, 재미부족, 부상, 기술향상 부진, 코치불만, 부정적 동료관계 등을 지적하고(Burrton & Martens, 1986; Gould, Feltz & Weiss,

1985; Klint & Weiss, 1986; Orlick, 1973; 1974; Orlick & Bottenill, 1975; Pooley, 1981; State of Michigan, 1978; Weiss & Petlichkoff, 1989), 이는 지나친 승리에 의존한 결과라 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스포츠현장에서는 운동부담 및 자신감결여, 학업문제, 흥미상실, 동료문제, 경제적 어려움, 힘든 훈련, 부상, 부족한 휴식, 장래불안, 저조한 기술력 등이 원인이라고 하였다(김경원, 송우엽, 2001; 박정근, 김지영, 맹희정, 2001; 성창훈, 2002; 유진, 김영재, 1999; 이규일, 허창혁, 류태호, 2011; 이명훈, 이근모, 이남미, 2003; 임수원, 이정래, 2002).

국내·외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중도포기의 원인은 부담, 자신감결여, 재미 부족 등으로, 이는 운동수행을 위한 내적동기는 감소하고, 무능력함과 같은 의미를 갖는 무동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즉 심판판정에 의한 결과를 다음 수행을 위한 피드백으로 활용할 때 내적동기가 증가되나 무엇이 잘 되었고, 잘못되었는지 조차 판단하지 못할 경우에도 무동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즉 판정인식에 따른 부정적 심리상태는 결국 중도포기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운동에 대한 회의감을 지각하게 될 때 중도포기를 하게 된다는 조일용과 박병국(2011)의 주장이 설득력을 높여준다.

스포츠현장에서 경쟁상황은 필연적이므로 공정성에 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다양한 분야, 경기종목에서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2014년 3월, 스포츠현장에서 도덕성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임심판제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심판의 윤리의식을 강화해 공정성 확립, 심판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 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써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스포츠조선, 2014.04.08; 스포츠조선, 2015.08.11.). 아울러 윤병인(2014)은 심판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태권도 경기에서 심판들은 정확한 판단으로 선수와 심판 간 신뢰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개선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일관되고 공정한 판정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승리를 위한 일념으로 판정을 불신할 수 있고, 이는 부정정서를 경험하여 결과적

으로 낮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태권도 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관정과 중도포기의도의 관계에서 자기관리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자기관리란 어떠한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며, 스스로의 노력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Jones, Nelson, & Kazdin, 1977). 그렇다면 운동선수들의 자기관리행동은 최상의 운동수행 및 경기력을 발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고와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인지행동전략으로 설명된다(허정훈, 유진, 2004). 자기관리에 대한 구성개념은 허정훈과 김병준, 유진(2001)의 연구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고 이후, 허정훈(2003)은 자기관리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몸관리, 정신관리, 훈련관리, 대인관리 등 4개의 주요개념으로 정립하였고, 편향적인 개념이 아니라 몸관리, 정신관리, 훈련관리 및 대인관리를 모두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운동선수에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즉 우수선수와 일반선수의 특징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부터 차이가 있다는 연구(김병준, 2003; Orlick & Partington, 1988)와 같이 자기관리는 인지행동전략에서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선수들의 운동수행 및 경기력을 향상시켜주고 중도포기의도를 일부분 감소시켜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본 연구는 자기관리를 중재변인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태권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무도로서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2016년 리우올림픽까지 다수의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강남원, 양춘호, 2013). 그러나 더 이상 태권도 메달이 우리나라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태권도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어 발전하고, 국내의 우수한 지도자들이 해외의 지도자로 파견되면서부터 국외의 선수들에게 정상의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연구는 국내 선수들의 경기력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심판관정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 연구를 통해 태권도선수들의 경기력은 물론, 저변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필요성을 갖는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판정과 자기관리 및 중도포기의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토대로 심판과 선수, 그리고 지도자는 공존의 관계로서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판정에 대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

C.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문제 1.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의 배경변인에 따라 심판판정 인식과 자기관리, 중도포기의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가설 1) 성별에 따라 심판판정 인식과 자기관리, 중도포기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소속에 따라 심판판정 인식과 자기관리, 중도포기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문제 2.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이 지각하는 심판판정과 자기관리, 중도포기의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1) 판정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자기관리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판정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중도포기의도는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자기관리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중도포기의도는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D. 연구모형

본 연구의 인과관계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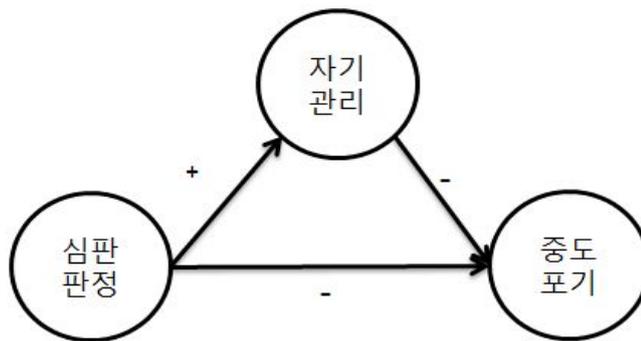


그림 1.

그림 1. 연구모형

E.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1) 본 연구는 특정대회에 참가한 고등부 이상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태권도 모든 선수들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2) 본 연구에서는 조사방법으로 설문지를 활용한 자기평가기입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설문 응답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인 반응을 제거하지 못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A. 심판판정

심판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다. 심판은 공정한 심판판정을 통하여 경기에 있어 선수들이 판정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언제나 심판은 공정한 판정과 함께 누구라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경기진행을 하여야 한다. 사람으로서 시각과 경험을 가지고 판정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심판이 로봇이 아닌 이상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심판의 역할은 중요시 되고 있으며 심판판정에 따라 선수들의 진로나 미래가 결정이 될 수도 있다(윤희성, 2014).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 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판정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공정성

심판판정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다. 공정성의 사전적 의미는 “평가 결과가 평가받는 특성 이외의 요인, 즉 평가대상이 속하는 특정집단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 않게 나오는 정도”를 말한다. 스포츠 경기는 각 경기 특성에 따라 별도의 경기규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심판 판정의 불공정 유발 등을 보면 모든 종목이 유사한 요인에 의하여 심판판정에 대한 비판을 받게 됨을 볼 수 있다. 한 예로 축구경기에 있어서 발생하는 공정치 못한 심판판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스포츠 종목에서 공통적으로 심판에게 요구하는 것은 학연, 지연 등의 주변 환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판정이다(김상겸, 문재태, 2014).

2. 신속성

태권도경기에 심판들의 신속한 판정은 경기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2009년부터 적용된 비디오 판정은 정확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신속성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박빙의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비디오 판정은 선수들의 경기흐름을 끊을 수 있어 자칫 상대팀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새로 도입된 태권도 비디오 판독 과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는데, “태권도 경기 중 점수를 얻었다고 생각할 때 혹은 상대의 공격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여겨질 때 요청할 수 있는 비디오 판독제 과정이 복잡하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스포츠 조이, 2012년 8월 12일 보도자료). 또한 안영선(2014)은 심판의 결정은 가능하면 행동을 본 즉시 이루어 져야하며, 이것은 항상 주저함이 없이 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자신이 본 상황에 따라 판단할 충분한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태권도 경기에서 정확한 심판판정도 중요하지만 경기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신속성 또한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3. 일관성

일관성의 사전적 의미는 “하나의 방법이나 태도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성질”을 의미한다. 태권도에서 심판간의 판정은 어떤 비슷한 상황에서도 같게 나와야 하며 양측의 선수에게 규칙이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선수, 코치 그리고 관중들은 심판이 일관성을 가지고 판정을 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에는 심판을 비난하게 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일관성이 없는 판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져온다고 보고되고 있다(안영선, 2014).

- 1) 코치들은 짜증을 내고 심판의 능력을 불신하게 된다.

2) 심판들은 자신이 이미 수행한 실수에 대한 보상으로 손해 본 선수에게 유리한 판정을 하려고 노력한다.

경기에서 이러한 불신 및 보상 작용은 반복적으로 작용하게 되며 결국 경기의 질을 떨어뜨리고 선수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여러 대의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반복되는 장면으로 인해 시청자들 또한 심판의 자질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판들의 일관성 있는 판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태권도에서 심판은 선수들의 빠른 동작을 관찰해야 하며 전자호구를 통해 나타나는 점수와 주관적 판정과의 일치성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심판들은 지도자와 선수들이 신뢰하는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순발력 있는 결정과 그에 따른 일관성 있는 규칙 적용이 필요하다(유인영, 모창배, 2010).

4. 신뢰성

심판들은 코치나 선수들과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한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 의사전달로 심판이 선수나 코치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전달을 수행하며 선수들은 심판의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판정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평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심판들은 또한 선수나 코치들을 존경하고 예의를 갖추어 줌으로써 서로 간의 신뢰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심판들은 심판을 수행하는 중에 친절하고 우호적으로 선수들을 대하여야 하며 항상 그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는 오해를 야기 시키기 말아야 한다(박대성, 2007).

B. 자기관리

자기관리란 자신이 어떤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기술이나 전략 등을 사용하여 자신의 변화를 주도하는 과정이다. 즉 자기관리 과정은 개인이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통제하여 제반 환경여건을 수정하고, 행동의 결과를 조정하면서 관리하는 것이다(Jones, Nelson & Kazdin, 1977; Miller, 1998).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시키는 결과에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변화 전략의 인성적, 체계적 응용으로 보는 자기관리 개념은 지기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통제(self-control), 자기조절(self-regulation)과 같은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자기통제라는 용어가 행동적 연구문헌에서 자기관리라는 용어보다 널리 사용되었으나 자기관리와 같은 의미로 간주하고 있다.

1. 운동선수의 자기관리

유진과 장덕선(1996)은 운동선수에게 자기관리란 최고수행을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스스로의 절제를 통하여 정신적으로 준비하고 극복해 가는 과정으로 정의된다고 하였다.

스포츠 상황에서 자기관리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며, 독자적인 체계를 가질 수 있는 이론적, 실제적 주체로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서구의 그것과는 달리 토착적 관점에서 발전될 가능성이 많다(김병준, 2003). 스포츠심리학 분야에서 진행된 여러 연구들과 운동선수의 자기관리와의 유사성은 우수선수의 성격 연구, 엘리트선수 연구 등에서 밝혀진 우수한 선수의 인지 행동적 특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수선수의 성격과 인지 행동적 특성을 살펴보면 최고수준의 선수들은 훈련을 효과적으로 충분히 하며, 명확한 일일 목표를 설정하고, 이미지 트레이닝과 모의훈련을 하며, 시

합에 대비해서 심리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Orlick & Partington, 1988).

결국,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충실한 자기관리는 성공적인 목적수행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신체적 관리, 정신적인 관리, 대인관계나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으로 스스로에게 철저해 지는 것을 말한다(허정훈, 유진, 2004).

허정훈 등(2001)은 한국의 대학 대표급 및 실업선수 155명(남97, 여58)을 대상으로 평소 훈련과 시합 시 자기관리를 위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개방형 질문지를 조사하고 삼각검증(triangulation)방법을 이용해 귀납적 내용분석을 시행한 바 있다.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의 선수들은 성공적인 선수생활과 최상의 운동수행을 위해 몸 관리, 정신관리, 훈련관리, 생활관리의 4가지 영역에서 몸 컨디션 조절,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최상의 경기력을 위한 선수들의 노력이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기관리 전략이다. 훈련 관리는 선수들이 연습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규칙적인 훈련과 부족한 개인연습으로 훈련에 집중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정신관리는 평소연습과 시합상황에서 불안과 두려움 등 심리적 문제를 조절하고 힘든 훈련을 이겨내며, 자신감을 갖는 등의 자기관리 전략을 말한다. 생활 관리는 평소 규칙적이고 절제된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술, 담배 자제, 수면관리, 대인관계 관리 등의 자기관리 전략을 말한다. 특히 대인관계관리는 팀 동료, 친구 등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인간관계 관리 측면으로 관계 중심적인 한국문화의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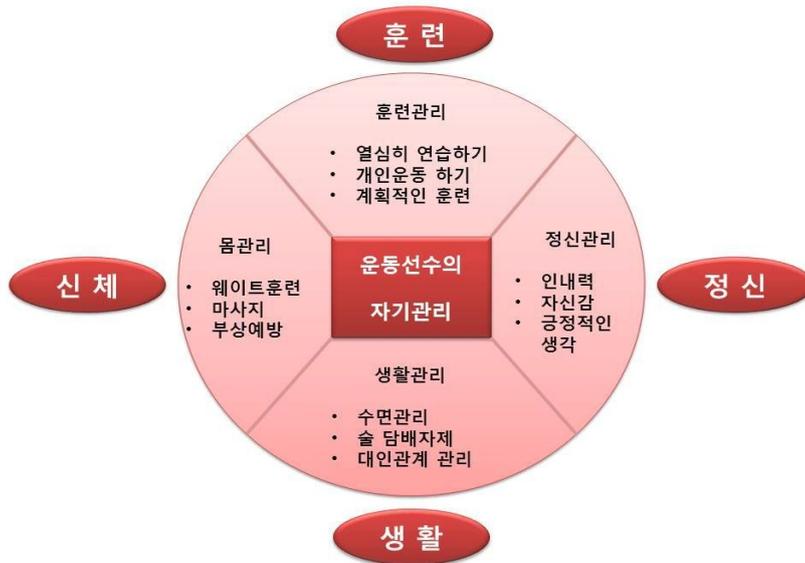


그림 2. 운동선수들의 자기관리 개념 모형

C. 중도포기의도

중도포기는 운동중단, 탈퇴, 탈락 등 기존 연구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혼용하여 사용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 다루는 중도포기의도는 운동선수가 운동을 중단하고 다른 직업 및 진로를 결정할 의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오준석, 2016a).

1. 운동선수의 중도포기

스포츠 활동을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운동의 효과를 최대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활동을 시작한지 수개월 내에 중도포기하는 경우가 많다(Dishman, 1984). 따라서 청소년 스포츠 참가자의 감소와 기존

선수들의 중도탈락 문제는 현장의 체육교사나 코치뿐만 아니라 우리 체육학계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서구의 다양한 분야에서 보고된 청소년 스포츠 참가나 탈퇴와 관련한 체계적 지식들에 비추어 볼 때 학문의 현장 중심적 혹은 실제적 접근 측면에서 우리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성장훈과 홍성철, 성한기(2001)는 주장하였다.

스포츠에서 청소년 선수들의 중도포기 현상은 고도의 경기력 수준을 강요하는 성인 지향적 엘리트 스포츠가 갖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프로선수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증가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을 더욱 어린 연령에 스포츠에 참여하도록 조장하고 있고, 코치들은 강도 높은 훈련과 준비를 고무하며, 정부나 단체들 역시 엘리트 스포츠 참여를 정당화하고 있어 중도탈락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운동선수들의 중도포기 현상은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프로스포츠의 활성화와 대학 진학 특혜에도 불구하고 선수확보를 최대의 난점으로 지적하는 일선 운동부 담당교사나 코치들의 고민은 이런 과도한 신체훈련, 코치의 처벌, 무능력 선수에 대한 차별 등과 같은 유해적 환경을 더욱 많이 포함하고 있는 우리 학원 스포츠의 현실을 감안할 때 스포츠 탈퇴현상은 서구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일 수도 있다(성장훈, 2002).

운동을 중도포기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청소년의 스포츠 탈락동기를 다룬 서구의 초기 연구들(Burton & Martens, 1986; Gould, Feltz, Horn, & Weiss 1982; Kint & Weiss, 1986)은 흥미의 변화, 일, 재미부족, 기술향상, 스트레스, 코치불만, 부정적 동료관계 등을 핵심적인 탈락요인으로 지적하고 이는 승리에 대한 지나친 강조에 기인한다는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의 문헌들에서는 생산성 강조나 제한적 보상획득 기회와 같은 스포츠 구조적특성(Coakley & White, 1992)과 선수 차별 등의 부정적 지도방법이 탈퇴의 보다 본질적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성장훈, 2002).

또한 그동안 운동의 중단, 포기, 중도탈락과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지나친 성취욕구, 코치문제, 훈련 프로그램, 승부에 대한 지나친 강조, 경기

결과에 대한 회의감, 부상, 진로문제, 선배와의 갈등, 이성관계, 지도자와의 갈등 문제(최관용, 2003), 부모의 요인과 지도자 요인, 경쟁과 승리에 대한 지나친 강조, 과도한 신체훈련, 코치의 처벌, 무능력 선수에 대한 차별, 과도한 경쟁적 구조, 동기 상실, 개인적 희생 등으로 보고하였다(성창훈, 2000; 성창훈, 홍성철, 성한기, 2001). 한국과 서구의 청소년 스포츠는 경쟁 수준, 프로그램의 목표와 구조유형, 조직문화 등에서 나타나는 현저한 차이로 말미암아 국내 선수들만이 갖는 고유한 중도포기 요인의 존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즉 서구 연구결과들에서 나타난 중도포기 요인은 개인의 흥미, 재미상실, 기술 향상 부족 등과 같은 내적요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는 진학과 관련된 지나친 승리, 수행 효율성의 강조, 그리고 부정적 코칭행동 등과 관련된 개인 외적인 요인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성창훈, 홍성철, 성한기, 2001).

Ⅲ. 연구 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는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판정과 자기관리, 중도포기의 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2017년 대한태권도협회에 등록된 선수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표집은 집락표집으로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주관하는 제12회 제주 평화기대회 및 2017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 참가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 후 동의를 구하였다. 설문조사는 2017년 2월 18~22일 까지 연구자가 경기장에 직접 참관하여 경기장 관중석에서 이루어졌으며, 경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경기가 종료된 선수에 한해서만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최초에는 총 235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 및 하나의 번호에 집약된 불성실한 17명의 자료를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자료는 총 218명에 의해 분석되었으며, 구체적인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117	53.7%
	여자	101	46.3%
소속	고등부	99	45.4%
	대학부	80	36.7%
	일반부	39	17.9%
운동경력	5년 미만	61	28%
	5년 이상-10년 미만	90	41.3%
	10년 이상	67	30.7%

B. 조사도구

1. 심판판정

본 연구의 심판판정 인식에 대한 척도는 박대성(2007)과 윤병인(2014), 임근석(2016)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공정성, 신속성, 일관성, 신뢰성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요인에 5개의 문항으로 재구성 하였다. 설문지는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의 5점 Liketr 척도로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 그렇다'까지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판정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구체적인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심판판정에 대한 설문지 구성

변 수	요 인	문항 수	문항번호	
독립 변수	심판판정	공정성	5	1, 2, 3, 4, 5
		신속성	5	6, 7, 8, 9, 10
		일관성	5	11, 12, 13, 14, 15
		신뢰성	5	16, 17, 18, 19, 20
합 계			20문항	

a. 심판관정에 대한 타당도

심판관정 인식에 대한 요인구조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요인추출방법은 직교회전 방식을 이용한 주축요인추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표 3. 심판관정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공통성
	신속성	공정성	신뢰성	일관성	
Q8	.799	.206	.140	.148	.721
Q9	.774	.181	.227	.162	.710
Q7	.740	.275	.216	.188	.705
Q10	.667	.195	.236	.317	.639
Q6	.646	.222	.270	.151	.563
Q3	.256	.809	.257	.235	.842
Q1	.202	.800	.363	.221	.861
Q2	.312	.789	.240	.257	.843
Q4	.307	.736	.315	.204	.777
Q16	.266	.304	.773	.248	.822
Q19	.256	.295	.692	.297	.720
Q20	.298	.308	.689	.227	.710
Q17	.366	.353	.621	.225	.695
Q15	.071	.072	.394	.779	.773
Q12	.330	.361	.127	.713	.764
Q11	.409	.347	.253	.673	.805
Q13	.306	.373	.203	.582	.613
고유치	3.679	3.490	2.814	2.579	
분산(%)	21.642	20.530	16.556	15.168	
누적(%)	21.642	42.172	58.728	73.896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943					
Bartlett Test of Sphericity=2716.746, df=136, Significance=.000					

그 결과, 초기분석에서 요인적재치 .4의 기준치를 상회하지 못하거나, 타 요인과 중복적재량을 갖는 문항은 순차적으로 문항삭제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표 3>과 같은 분석결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분석 자료로 적합하지 못한 Q5, Q14, Q18의 세 문항을 삭제한 후, 고유치 1이상의 요인이 4개로 명확하게 추출되었으며, KMO지수는 .943, Bartlett의 구형성검정 통계값 2716.746, 유의확률 .001로서 귀무가설이 기각되기 때문에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각 요인의 요인적재치는 최소 .582에서 최대 .809까지의 사이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각 요인의 분산은 각각 21.642, 20.530, 16.556, 15.168, 총 분산은 73.896으로 구인타당도가 확보되었다.

아울러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출된 문항들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적합도 지수의 기준은 χ^2 통계량과 p수준, 비표준 적합지수(Tucker Lewis Index: TLI),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 근사원소평균자승잔차(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를 준거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chi^2=200.244$, $df=113$, $p=.000$, $Q=1.772$, $TLI=.961$, $CFI=.967$, $RMSEA=.060$ 로 p값을 제외한 모든 지수 값이 적합도 기준치에 부합하였다. 카이제곱 통계량 p값은 표본 크기와 측정 변수의 수에 민감하여 쉽게 기각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대안으로 카이제곱에서 자유도로 나눈 Q값이 기준치 3이하의 1.772로 부합하기 때문에 심판판정에 대한 모델 적합도는 수용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김계수, 2010).

b. 심판판정에 대한 신뢰도

심판판정 인식의 신뢰도는 하위 척도별 내적 일치도 검사방법인 신뢰도 분석(Cronbach'a)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공정성 .932, 신속성 .869, 일관성 .852, 신뢰성 .880으로 신뢰롭게 나타났고,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949의 계수 값을 보였다.

표 4. 심판관정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항목	문항수	Cronbach's α
스트레스	공정성	1, 2, 3, 4	.932
	신속성	6, 7, 8, 9, 10	.869
	일관성	11, 12, 13, 15	.852
	신뢰성	16, 17, 19, 20	.880
전 체		17	.949

2. 자기관리

자기관리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허정훈(2003)의 운동선수 자기관리 행동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표 5. 자기관리에 대한 설문지 구성

변 수	요 인	문항 수	문항번호
매개 변수	몸관리	5	1, 2, 3, 4, 5
	대인관리	5	6, 7, 8, 9, 10
	훈련관리	4	11, 12, 13, 14
	정신관리	4	15, 16, 17, 18
합 계		18문항	

설문지 구성은 몸 관리 5문항, 대인관리 5문항, 훈련관리 4문항, 정신관리 4문항 총 4요인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는 5점 Liketr 척도로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 그렇다'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효율적인 자기관리 행동을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측정도구의 구체적인 구성은 <표 5>와 같다.

a. 자기관리에 대한 타당도

자기관리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초기 분석에서 적합하지 못한 Q2, Q6번 두 개의 문항 삭제 후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유치 1이상의 요인이 4개로 명확하게 추출되었고, KMO지수는 .874, Bartlett의 구형성검정 통계값이 1527.839(p=.001)로써 적합한 표본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요인적재치는 최소 .543에서 847까지의 사이로 분포되어 있으며, 누적분산은 64.109%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4요인 16문항의 적합도 지수 $\chi^2=188.021$, $df=98$, $p=.000$, $Q=1.919$, $TLI=.924$, $CFI=.938$, $RMSEA=.065$ 로 적합도 기준에 부합하였다.

표 6. 자기관리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 항	요 인				공통성
	대인관리	정신관리	훈련관리	몸관리	
Q8	.847	.105	.166	.183	.773
Q7	.824	.199	.203	.112	.789
Q9	.796	.267	.153	.130	.745
Q10	.693	.311	.174	.112	.619
Q16	.243	.790	.278	.050	.763
Q17	.205	.790	.299	.120	.770
Q15	.198	.718	.160	.198	.619
Q18	.237	.697	.130	.300	.649
Q12	.103	.242	.824	.037	.750
Q11	.207	.193	.754	.019	.649
Q13	.102	.147	.594	.402	.546
Q14	.275	.229	.543	.133	.440

Q1	.308	.036	-.001	.721	.616
Q3	-.050	.263	.022	.685	.541
Q5	.246	-.047	.354	.618	.570
Q4	.077	.249	.113	.580	.418
고유치	3.009	2.772	2.366	2.110	
분산(%)	18.809	17.326	14.789	13.185	
누적(%)	18.809	36.135	50.924	64.109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874					
Bartlett Test of Sphericity=1527.839, df=120, Significance=.000					

b. 자기관리에 대한 신뢰도

심판관정 인식의 신뢰도는 하위 척도별 내적 일치도 검사방법인 신뢰도 분석 (Cronbach'a)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7>과 같이 몸관리 .650, 대인 관리 .877, 훈련관리 .745, 정신관리 .856으로 기준치 .6을 상회하고, 전체 16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890의 계수 값을 보였다.

표 7. 자기관리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항목	문항수	Cronbach's α
자기 관리	몸관리	1, 3, 4, 5	.650
	대인관리	7, 8, 9, 10	.877
	훈련관리	11, 12, 13, 14	.745
	정신관리	15, 16, 17, 18	.856
전 체		16	.890

3. 중도포기의도

중도포기의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성장훈, 홍성철 및 성한기(2001)의 스포츠 탈퇴동기 결과를 토대로 성장훈(2002)이 개발한 척도를 오준석(2016a)의 연구에서 재수정하여 사용된 문항을 활용하였다. 설문내용은 ‘운동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 ‘운동으로는 장래가 불투명해서 그만두고 싶다’ 등의 5문항 단일요인으로 제작하였다(부록참조).

a. 중도포기의도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

중도포기의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 1이상의 하나로 명확하게 추출되었고, KMO 값은 .820, 유의수준 $p < .001$ 로서 변수의 설정이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인에 대한 적재치는 최소 .763에서 .869까지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72.689%의 분산을 보였다. 아울러, 단일요인 5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906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일요인 다섯 문항의 적합도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여 표준화된 잔차 값과 SMC값을 기준으로 Q2번 삭제 후 적합도는 $\chi^2=10.796$, $df=2$, $p=.005$, $Q=2.398$, $TLI=.944$, $CFI=.981$, $RMSEA=.075$ 로 적합도 지수가 향상되었다.

표 8. 중도포기의도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결과

문 항	요 인	공통성	Cronbach's α
	중도포기의도		
Q3	.869	.773	.906
Q2	.857	.789	
Q1	.855	.745	
Q5	.851	.619	
Q4	.824	.763	
고유치	3.634		
분산(%)	72.689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820			
Bartlett Test of Sphericity=719.976, $df=10$, Significance=.000			

C. 조사절차

본 연구는 광범위한 선행연구와 문헌조사를 통해 설문지의 초안을 작성하였고, 제작된 설문지는 스포츠 사회학 박사 1인, 스포츠 심리학 박사 1인의 전문가에게 설문지의 구성 및 문항의 난이도를 검토 및 논의하는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설문지를 보완하였다. 보완된 설문지는 광주광역시 고등부 태권도선수 20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제작된 문항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선수들은 설문문항을 쉽게 이해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최종 확정된 설문지는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주관하는 전국대회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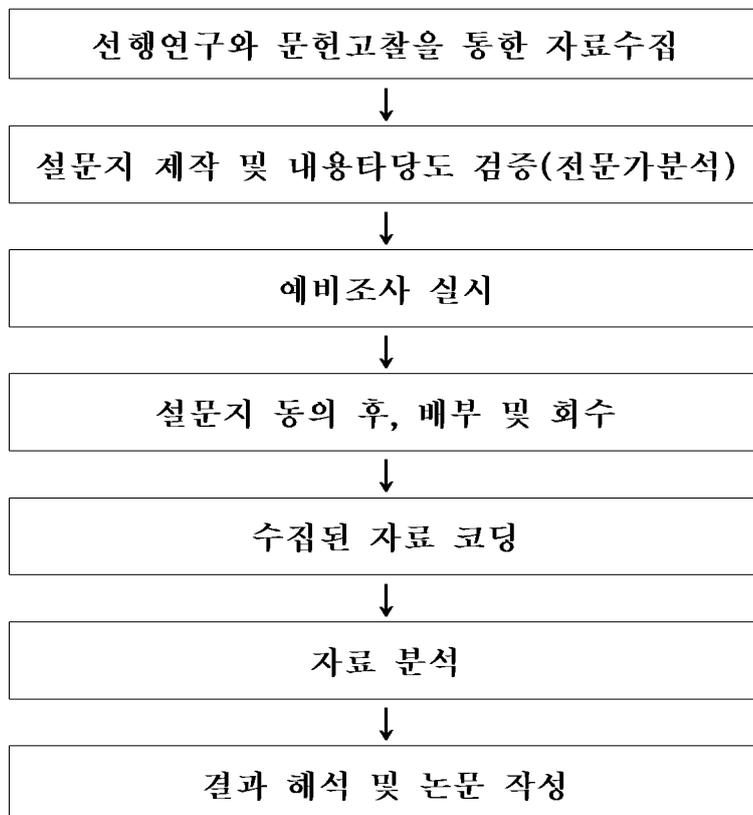


그림 3. 조사절차

D. 자료처리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AMOS 21.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모든 통계의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첫째, 배경변인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차이 존재 시 사후검증은 Scheffe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측정변인 간 관련성을 다중공선성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변인 간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IV. 연구 결과

A. 집단 간 차이

1. 성별에 따른 차이

a. 심판판정

성별에 따른 심판판정 차이를 보면, 신속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공정성과 일관성, 신뢰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공정성의 t값은 3.221($p < .001$), 일관성 t값 2.002($p < .05$), 신뢰성 t값 2.559($p < .05$)로 모든 요인에서 남자선수들이 여자선수들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성별에 따른 심판판정 차이결과

변 인	남녀 차이				
	남(n=117)	여(n=101)	df	t	p
심판판정					
공정성	3.59±.73	3.25±.82	216	3.221	.001
신속성	3.60±.63	3.56±.68	216	.354	.724
일관성	3.48±.69	3.27±.80	216	2.002	.047
신뢰성	3.41±.79	3.14±.77	216	2.559	.011

b. 자기관리

성별에 따른 자기관리의 차이는 <표 10>과 같이 몸관리, 대인관리, 훈련관리 및 정신관리의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즉 태권도 남녀선수들의 자기관리 행동의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10. 성별에 따른 자기관리 차이결과

변 인	남녀 차이				
	남(n=117)	여(n=101)	df	t	p
몸관리	3.52±.63	3.54±.54	216	-.231	.818
대인관리	3.92±.70	4.02±.61	216	-1.075	.283
훈련관리	3.54±.59	3.39±.62	216	1.818	.071
정신관리	2.77±.91	2.49±.82	216	1.429	.154

c. 중도포기의도

성별에 따른 중도포기의도의 차이는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t값이 2.386($p<.05$)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자선수들(M=2.77)이 남자선수들(M=2.49)보다 중도포기의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1. 성별에 따른 중도포기의도 차이결과

변 인	남녀 차이				
	남(n=117)	여(n=101)	df	t	p
중도포기의도	2.49±.82	2.77±.91	216	2.386	.018

2. 소속에 따른 차이

a. 심판판정

소속에 따른 심판판정 차이의 결과는 <표 12>와 같다. 구체적으로, 심판판정의 공정성, 신속성, 그리고 일관성 요인에서는 소속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신뢰성 요인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신뢰성의 F값을 보면, 4.613으로 고등부와 대학부의 선수들이 일반부 소속의 선수들보다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표 12. 소속에 따른 심판판정 차이결과

변인	소속	n	M±SD	df	F	p	post-hoc (Scheffe)	
심판판정	고등학교(A)	99	3.47±.79					
	공정성	대학교(B)	80	3.51±.81	2/215	2.694	.070	
	일반부(C)	39	3.17±.73					
	고등학교(A)	99	3.59±.70					
	신속성	대학교(B)	80	3.62±.69	2/215	.556	.575	
	일반부(C)	39	3.48±.40					
	고등학교(A)	99	3.34±.82					
	일관성	대학교(B)	80	3.50±.73	2/215	1.712	.183	
	일반부(C)	39	3.26±.55					
신뢰성	고등학교(A)	99	3.33±.76					
	대학교(B)	80	3.40±.86	2/215	4.613	.011	C<A,B	
	일반부(C)	39	2.95±.60					

b. 자기관리

소속에 따른 자기관리의 차이는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몸관리, 훈련관리 및 정신관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p > .05$), 대인관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119, p < .05$). 사후검증을 보면, 고등부($M=3.84$)보다 일반부($M=4.21$)의 선수들이 대인관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소속에 따른 자기관리 차이결과

변인	소속	n	M±SD	df	F	p	post-hoc (Scheffe)	
자기 관리	몸관리	고등학교(A)	99	3.55±.58	2/215	.979	.377	
		대학교(B)	80	3.46±.61				
		일반부(C)	39	3.60±.54				
	대인관 리	고등학교(A)	99	3.98±.64	2/215	4.119	.018	B<C
		대학교(B)	80	3.84±.68				
		일반부(C)	39	4.21±.62				
	훈련관 리	고등학교(A)	99	3.41±.57	2/215	.951	.388	
		대학교(B)	80	3.53±.64				
		일반부(C)	39	3.52±.63				
정신관 리	고등학교(A)	99	3.62±.66	2/215	1.397	.250		
	대학교(B)	80	3.59±.72					
	일반부(C)	39	3.81±.69					

c. 중도포기의도

소속에 따른 중도포기의도의 차이는 <표 14>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579$, $p<.05$). 사후검증 차이를 보면, 일반부($M=2.45$)의 선수들보다 대학부($M=2.84$)의 선수들이 중도포기의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소속에 따른 중도포기의도 차이결과

변인	소속	n	M±SD	df	F	p	post-hoc (Scheffe)
중도포기의도	고등학교(A)	99	2.55±.82	2/215	3.579	.030	C<B
	대학교(B)	80	2.84±.93				
	일반부(C)	39	2.45±.85				

B. 심판판정과 자기관리, 중도포기의도의 관계

1. 변인 간 상관관계

a. 측정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이 지각하는 심판판정과 자기관리, 중도포기의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측정변인 간 상호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15>와 같이 나타났다.

표 15. 측정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	1	.640**	.688**	.742**	.181*	.337**	.317**	.322**	-.169*
2		1	.654**	.678**	.244**	.384**	.278**	.254**	-.136*
3			1	.719**	.342**	.413**	.357**	.376**	-.240**
4				1	.249**	.313**	.333**	.317**	-.146*
5					1	.412**	.416**	.443**	-.158*
6						1	.498**	.548**	-.309**
7							1	.564**	-.178*
8								1	-.303**
9									1
M	3.45	3.58	3.38	3.29	3.53	3.97	3.47	3.64	2.64
SD	.79	.65	.75	.79	.59	.66	.61	.69	.88

1=공정성, 2=신속성, 3=일관성, 4=신뢰성, 5=몸관리, 6=대인관리, 7=훈련관리, 8=정신관리, 9=중도포기의도/ *p<.05, **p<.01

먼저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들(심판판정) 간의 상관계수를 보면, $r=.640$ 에서 $r=.742$ 까지의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높은 상관이 있고($p<.01$), 매개변수로 설정한 자기관리의 측정변인 간 상관계수 $r=.412$ 에서 $r=.564$ 까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p<.05$). 그리고 독립변수와 중도포기의도의 상관계수 $r=-.136$ 에서 $r=-.240$ 까지의 부적(-) 상관이 있고, 매개변수와 중도포기의도의 상관계수 $r=-.158$ 에서 $-.309$ 까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측정변수들 간의 자료를 보면 .8이하의 상관계수를 보임에 따라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는 해소되었으며, 측정변수들은 상호 독립적인 개념으로 인과관계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적합한 자료임을 확인하였다.

2. 심판관정과 중도포기의도

a 심판관정에 대한 인식이 중도포기의도에 미치는 영향

변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기에 앞서, 독립변수들이 기본가정에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공선성 통계량의 공차 값은 .340에서 .465까지 .1에서 1까지의 사이로 분포되어 있었고, 분산팽창지수(VIF) 값 또한 10이하로 기본 가정에 충족하였다. 아울러 독립변인 간 자기상관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Durbin-Watson 값도 1.722로 비교적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임을 확인하였다.

표 16. 심판관정에 대한 인식이 중도포기의도에 미치는 영향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중도포기의도	상수	3.535	.335		10.551	.000
	공정성	-.055	.118	-.050	-.466	.642
	신속성	.037	.131	.027	.280	.780
	일관성	-.320	.123	-.272	-2.597	.010
	신뢰성	.076	.127	.069	.601	.548
		R2(adj. R2)=.060(.042), F=3.397**		Durbin-Watson= 1.722		

**p<.01

이에 따라 입력방법에 의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표 16>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먼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6%(R²: .042)의 수준으로 확인하였고, F값은 3.397(p<.01)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세부적인 인과관계에서는 종속변인의 중도포기의도에서 일관성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표준화된 베타 값은 -.272(t=-2.597, p<.05)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심판관정과 자기관리

a. 심판관정에 대한 인식이 몸관리에 미치는 영향

몸관리에 대한 심판관정의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17>과 같이 나타났다. 그 결과, 독립변수는 종속변수를 12.7%($R^2: .11$)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 7.735로 유의확률 $p < .0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정성과 신속성, 그리고 신뢰성의 변수는 몸관리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으나 일관성에 대한 변수의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beta = .364, p < .001$).

표 17. 심판관정에 대한 인식이 몸관리에 미치는 영향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상수	2.603	.216		12.041	.000
	공정성	-.114	.076	-.154	-1.490	.138
몸관리	신속성	.059	.084	.066	.702	.484
	일관성	.286	.079	.364	3.600	.000
	신뢰성	.042	.082	.057	.516	.607
R2(adj. R2)=.127(.110), F=7.735***				Durbin-Watson= 2.007		

*** $p < .001$

b. 심판관정에 대한 인식이 대인관리에 미치는 영향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관정에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8>과 같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심판관정은 대인관리에 19.6%(R²: .181)의 설명력을 보이고, F값 13.018 (p<.001)로써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신속성과 일관성이 모형에 포함되었으며, 각 변수의 베타 값은 .211과 .294로 나타났다.

표 18. 심판관정에 대한 인식이 대인관리에 미치는 영향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상수	2.382	.234		10.181	.000
	공정성	.056	.083	.067	.674	.501
대인관리	신속성	.214	.091	.211	2.339	.020
	일관성	.261	.086	.294	3.035	.003
	신뢰성	-.076	.088	-.091	-.861	.390
R2(adj. R2)=.196(.181), F=13.018***				Durbin-Watson= 1.720		

***p<.001

c. 심판관정에 대한 인식이 훈련관리에 미치는 영향

심판관정에 대한 인식이 훈련관리에 미치는 영향력의 결과는 <표 19>와 같이 독립변수는 종속변수를 14.2%(R^2 : .126)의 수준으로 설명하고, F값 8.822로 유의미하였다. 세부적인 인과관계를 보면, 일관성에 대한 변수만 베타 값 .214로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였다.

표 19. 심판관정에 대한 인식이 훈련관리에 미치는 영향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상수	2.352	.223		10.560	.000
	공정성	.060	.079	.078	.759	.449
훈련관리	신속성	.009	.087	.010	.106	.916
	일관성	.175	.082	.214	2.139	.034
	신뢰성	.089	.084	.115	1.057	.292
R2(adj. R2)=.142(.126), F=8.822***				Durbin-Watson= 2.028		

***p<.001

d. 심판관정에 대한 인식이 정신관리에 미치는 영향

정신관리에 미치는 심판관정의 영향변수를 확인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20>과 같이 전체 모형은 15.1%(R^2 : .126)의 설명력을 보이고, F값 9.438로 유의미하였다($p < .001$). 아울러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일관성이 모형에 포함되었으며, 베타 값은 .286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0. 심판관정에 대한 인식이 정신관리에 미치는 영향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상수	2.414	.252		9.594	.000
	공정성	.094	.089	.107	1.055	.293
정신관리	신속성	-.047	.098	-.045	-.482	.630
	일관성	.265	.092	.286	2.871	.005
	신뢰성	.055	.095	.062	.576	.565
R2(adj. R2)=.151(.135), F=9.438***				Durbin-Watson= 1.942		

*** $p < .001$

4. 자기관리와 중도포기의도

a. 자기관리가 중도포기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관리가 중도포기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한 결과는 <표 21>과 같이 나타났다. 독립변수 자기관리는 중도포기의도를 12.3%(R^2 : .106)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 7.444로 유의하였다($p < .001$). 세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대인관리와 정신관리가 중도포기의도에 부(-)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대인관리의 베타 값은 $-.219$ ($p < .01$), 정신관리의 베타 값 $-.213$ ($p < .05$)으로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였다.

표 21. 자기관리와 중도포기의도에 미치는 영향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상수	4.504	.425		10.588	.000
	몸관리	.010	.111	.007	.087	.930
중도포기의도	대인관리	-.291	.107	-.219	-2.707	.007
	훈련관리	.069	.118	.048	.588	.557
	정신관리	-.269	.108	-.213	-2.487	.014
R2(adj. R2)=.123(.106), F=7.444***				Durbin-Watson= 1.876		

*** $p < .001$

V. 논의

A. 집단 간 차이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이 지각하는 심판판정과 자기관리, 중도포기의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정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보면, 심판판정은 공정성과 일관성 및 신뢰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남자선수들이 여자선수들보다 심판판정에 대해 더욱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여자선수들이 상대적으로 심판을 불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중도포기의도는 남자선수들이 여자선수들보다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하키종목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정청희와 홍길동(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태권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윤병인(2014), 임근석(2016)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특히 오준석과 윤기운(2015)의 연구에서는 심판판정의 일관성 부분을 지적하였고, 일관되지 못한 판정은 다음 수행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며, 판정결과로 인한 경기력저하를 우려했다. 중도포기의도는 체조선수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오준석(2016a)의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이는 중도포기의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김용규(2007)는 목표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의 세심한 배려가 중도포기의도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정훈(2010)은 고교 태권도선수들을 대상으로 운동스트레스에 따른 운동지속의사를 조사하였는데, 여자선수들이 운동에 대한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의도가 낮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본 연구의 소속에 따른 차이는 심판판정의 신뢰성 요인에서 일반부 선수들이 가장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관리는 대인관리 요인에서 대학부보다 일반부 선수들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중도포기의도는 일반부보다 대학부 선수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임근석(2016)의 연구와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오준석과 윤기운(2015)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이들은 소속이 높은 집단일수록 경기경험이 많고, 객관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심판판정에 대해 보다 냉정하게 평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운동선수들의 자기관리는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며(오준석, 2016a), 대인관리가 자신을 둘러싼 주요타자와의 인간관계 전략이라고 할 때, 태권도경기는 심판의 주관적 관점에 따라 판정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평소 대인관리에 집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도포기의도에서 나타난 결과는 성장훈(2002)이 주장한 우리나라 학교체육제도의 문제점이라고 제기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구조가 미흡하기 때문에 결국, 대학교 졸업 후에 실업팀에 입단하여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한 취업에 대한 걱정이 다른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B. 심판판정과 자기관리, 중도포기의도의 관계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은 심판판정을 높게 지각할수록 중도포기의도는 낮아진다고 설정한 가설에 대한 결과에서는 심판판정의 일관성 요인이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선수들이 심판들의 일관성을 높게 지각하게 될 때 중도포기의도를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태권도 경기에서 심판 간 판정은 어떠한 비슷한 상황에서도 일관되어야 하며 일관되지 못할 경우 심판의 능력을 불신할 뿐만 아니라, 동기저하, 의욕상실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심판들의 일관된 판정이 결여될 때, 선수들의 심리상태는 위축되거나 동요, 그리고 시합상황에서 중요한 단서를 놓치게 된다. 이는 결국 경기결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오준석과 윤기운(201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심판들에 대한 불신은 중도포기의도를 가중시킨다는 오준석(2016b)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임근석(201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이는 태권도 선수들이 판정의 일관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운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화됨에 따라 태권도 경기에서 일관성과 관련된 제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김운상(2015)은 태권도 경기에서 판정의 정확성을 강조하며 선수들의 지속의도를 높이기 위한 대안이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윤병인(2014)은 태권도 경기에서 판정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인식은 운동에 대한 몰입수준을 높이는 등, 동기적 측면에서 선수들의 긍정적인 정서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중도포기의도는 감소하고 지속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임근석(2016)은 태권도 선수들의 운동 지속의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가운데 심판의 정확한 판정을 요구하며, 심판의 판정이 오심이라고 판단될 경우, 심판으로서의 권위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선수 및 지도자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심판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윤병인(2014)의 연구에서는 심판판정 인식이 태권도 선수들의 몰입 및 자신감, 경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며, 태권도 심판들은 꾸준히 경기규정에 대한 지식과 개인적 자질, 정확한 판단으로 선수와의 신뢰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이 지각하는 심판의 일관성은 몸관리, 대인관리, 훈련관리 및 정신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선수들의 긍정적인 자기관리 행동 중에서 대인관리와 정신관리는 중도포기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 선수들이 지각하는 심판판정 요인 중에서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며, 자기관리 행동 중에서는 대인관리와 정신관리가 중도포기의도를 감소시

킬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점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심판판정의 일관성은 태권도 종목뿐만 아니라 하키, 핸드볼, 쇼트트랙, 체조 등 많은 종목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김희중, 2000; 박천조 등, 2004; 정창우, 2002; 오준석, 윤기운, 2015; 이재경, 이주형, 2008; 한기훈, 이진성, 2004). 판정의 일관성에 대하여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경쟁스포츠에서 일관된 판정이 결여될 때 지도자 및 선수는 다음수행에 대해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 정확하게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일관된 판정에 의한 정확한 피드백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됨으로 운동선수들은 자기관리 행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오준석(2016b)은 운동선수들의 중도포기의도를 해결하는 방안 가운데 지도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지목하였다. 실제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중단하게 될 때, 선수 스스로 결정하는 비율이 73.8%이며, 25.8%는 상의할 사람이 없었다고 하였다. 상담사례를 보더라도 부모상담이 49.3%의 비율인 반면, 스포츠현장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지도자의 상담은 10%에 불과하다는 분석결과만 보더라도 지도자와 선수 간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이규일, 허창혁, 류태호, 2011).

본 연구에서도 운동선수의 자기관리 행동 중에서 대인관리와 정신관리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 중도포기의도가 감소된다는 결과와 같이, 지도자의 소통을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다. 즉 지도자와 선수의 관계가 상호 협력적 관계에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개인차를 고려한 맞춤형 훈련방법을 제시할 때 선수들의 중도포기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VI. 결 론

본 연구는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이 지각하는 심판판정과 자기관리 및 중도포기의도의 관계를 구명하고, 동기화 측면에서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A. 집단 간 차이

첫째,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남자선수들이 여자선수들보다 심판판정의 공정성과 일관성, 신뢰성을 높게 지각하고, 중도포기의도는 여자선수들이 높게 지각하였다.

둘째, 소속에 따른 차이는 심판판정의 신뢰성 요인에서 일반부 선수보다 고등부와 대학부 선수들이 높게 지각하고, 자기관리는 대인관리 요인에서 대학부 선수보다 일반부 선수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포기의도는 일반부 선수보다 대학부가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심판판정과 자기관리, 중도포기의도의 관계

첫째,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은 심판판정의 일관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중도포기의도를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은 심판판정의 일관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기관리의 몸관리, 대인관리, 훈련관리 및 정신관리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속성을 높게 지각하게 될 때 대인관리를 높일 수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셋째,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의 자기관리 행동 중에서 대인관리와 정신관리를 높일수록 중도포기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 고 문 헌

- 강남원, 양춘호(2013). 성별 및 학력에 따른 태권도 선수의 스트레스 원인과 해소 요인. 한국스포츠학회지, 11(1), 73-84.
- 김경원, 송우엽(2001). 스트레스 유형에 따른 청소년 운동선수의 탈진. 한국스포츠 심리학회지, 12(1), 161-179.
- 김계수(2010). AMOS 18.0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한나래 아카데미.
- 김병준(2003). 운동선수 자기관리행동의 측정. 체육과학연구, 14(4), 125-140.
- 김상겸, 문재태(2014). 헌법상 스포츠의 공정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심판 판정의 공정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스포츠와 법, 17(2), 71-99.
- 김용규(2007). 체조선수의 선수성숙도와 자기관리 및 스포츠심리기술의 인과관계. 체육과학연구, 18(2), 94-103.
- 김용수(2010). 펜싱경기 심판판정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 한국스포츠학회지, 8(2), 11-22.
- 김윤상(2015). 중·고등학교 품새선수의 심판판정 인식이 운동지속의도 및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김정훈(2010). 고교 태권도선수의 운동스트레스에 따른 생활만족도 및 운동지속의사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대학원.
- 김희중(2000). 하키 심판판정이 중·고등학교 선수들의 의식 및 경기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박대성(2007). 경기태권도 심판판정에 대한 인식이 선수들의 심리상태 및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박정근, 김지영, 맹희정(2001). 국가대표 리듬체조 선수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안. 한국체육학회지, 40(1), 147-163.
- 박천조, 이후봉, 백상서, 김경진, 안길영(2004). 심판판정이 핸드볼 경기에 미치는 영

- 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5(5), 787-796.
- 성창훈(2000). 청소년 운동선수의 리더십 지각,1: 코칭행동의 지각과 선호성. 한국 스포츠심리학회지, 21, 55-74.
- 성창훈(2002). 청소년 운동선수의 스포츠 탈퇴요인 구조 및 관련 변인 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3(2), 39-57.
- 성창훈(2002). 청소년 운동선수의 스포츠 탈퇴요인 구조 및 관련 변인 분석. 한국 스포츠심리학회지, 13(2), 39-57.
- 성창훈, 홍성철, 성한기(2001). 학원 운동선수들의 스포츠 탈퇴동기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8(2), 145-162.
- 안영선(2014). 아마추어 농구경기에서 환경적 요인이 심판판정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정창우(2002). 대학축구선수들의 심판 인식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오준석(2016a). 기계체조선수들의 운동스트레스와 자기관리, 중도포기의도의 구조적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55(5), 91-104.
- 오준석(2016b). 여자 기계체조선수들이 지각하는 심판판정과 중도포기의도의 관계에서 운동 몰입의 조절효과. 한국사회체육학회지, 64, 617-628.
- 오준석, 윤기운(2015). 여자 기계체조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판정과 지각된 경기결과 간의 관계: 지각된 심리상태의 조절효과. 코칭능력개발지, 17(2), 63-71.
- 유인영, 모창배(2010). 농구경기 심판판정에 대한 대학선수들의 인식 조사.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5(4), 161-171.
- 유진, 김영재(1999). 대학생 여가활동 참여의도에 미치는 인지 심리적 결정요인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38(4), 919-927.
- 유진, 장덕선(1996). 최고 수행을 위한 올림픽 선수들의 정신적 준비와전략. 한국체육학회지, 37(2), 151-168.
- 윤병인(2014). 태권도 선수들의 심판 판정에 대한 인식과 운동 몰입, 스포츠 자신

- 감 및 인지된 경기력의 구조적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 윤희성(2014). 태권도 심판판정에 대한 선수들의 인식 및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이규일, 허창혁, 류태호(2011).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의 중도탈락 원인 특성 및 개선방안. 체육과학연구, 22(3), 2189-2202.
- 이명훈, 이근모, 이남미(2003). 중등학교 체육특기자들의 중도탈락 영향 요인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9, 157-172.
- 이재경, 이주형(2008). 운동선수의 심판판정 인식과 운동의욕 및 인지된 경기력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9(5), 57-66.
- 임근석(2016). 태권도 선수들이 인식하는 심판판정과 경기력, 지속의도 간의 관계 분석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임수원, 이정래(2002). 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중도탈락과 학교생활적응상의 문제점 및 대책.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5(2), 231-246.
- 정말순(2000). 배구 심판에 대한 선수들의 인지도 조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정청희, 홍길동(2002). 하키 선수들의 심판 판정 인식에 따른 심리 상태 및 경기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 23(1), 11-21.
- 조일용, 박병국(2011). 여자고등학교 기계체조 선수의 탈사회화 형성과정. 코칭능력개발지, 13(2), 71-79.
- 최관용(2003). 체육고등학교 선수들이 운동을 포기하는 이유. 한국체육학회지, 42(3), 317-326.
- 한기훈, 이진성(2004). 태권도 선수들의 심판 판정 인식에 따른 심리상태 및 경기 영향도 분석. 인하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16, 95-116.
- 허정훈(2003). 운동선수 자기관리 검사지(ASMQ) 개발.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4(2), 95-109.
- 허정훈, 김병준, 유진(2001). 대학운동선수들의 자기관리 전략: 평소연습과 시합상황

- 비교. 한국체육학회지, 40(1), 187-198.
- 허정훈, 유진(2004). 국가대표 선수들의 자기관리 전략: 질적연구. 한국스포츠심리학회, 15(3), 27-52.
- Burrtton, D., & Martens, R. (1986). Pinned by their own goals: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into why kids drop out of wrestling. *Journal of Sport Psychology*, 8, 183-127.
- Coakley, J. J., & White, A.(1992). Making decisions; Gender and sport participation among British adolescents. *Sociology of Sports Journal*, 9, 20-35.
- Dishman, R. K.(1984). Physical activity and psychology in exercise and sport. *Medical Clinics of North America*, 19, 123-143.
- Gould, D., Feltz, D., & Weiss, M. R. (1985). Motives for participating in competitive youth swimming. *International of Sport Psychology*, 16, 126-140.
- Jones, R. T., Nelson, R. E., & Kazdin, A. E. (1977). The role of external variables in self reinforcement: A review. *Behavior Modification*, 1, 147-178. Cormier, W. H. & Comier, L. S. (1985). Interviewing Strategies for Helper.
- Klint, k., & Weiss, M. R. (1986). Dropping in and dropping out: participation motives of current and former youth gymnasts. *Canadian journal of applied sport sciences*, 11, 106-114.
- Miller, D. (1998). Enhancing adolescent competence Strategies for classroom management West Wadsworth An International Thomson.
- Orick T. D., & Partington, J. (1988). Mental links to excellence. *The Sport Psychologist*, 2, 105-130.
- Orlick, T. D. & Botterill, Cal.(1975). *Every Kid Can Win*. Chicago: Nelson Hall.

- Pooley, J. C. (1981). *Dropouts from sport: A case study for boys' age-group soccer*.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ve, Boston.
- State of Michigan. (1978). *Joint Legislative Study on Youth Sport Programs-Phase III*. East Lansing: Youth Sport Institute.
- Weiss, M. R., & Petlichkoff, L. M. (1989). Children's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in and withdrawal from sport: Identifying the missing links. *Pediatric Exercise Science*, 1, 195-211.
- 스포츠조선(2015.08.11). 대한체육회, 상임심판 선임교육 12~13일 진천선수촌에서. 전영지기자.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508120100108930007515&servicedate=20150811>
- 스포츠조선(2014.04.08). 대한체육회, 심판위 규정 제정-상임심판제 추진. 전영지기자.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404080100104900006466&servicedate=20140408>
- MBN뉴스(2014.09.23). '승부조작' 태권도협회 간부, 아들 시합도 개입 의혹. MBN뉴스, 정설민앵커.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080090>
- TV조선(2014.10.30). 태권도 '승부조작' 또 적발. TV조선 뉴스7, 이유경기자.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30/2014103090047.html
- 정책브리핑(2014.09.16). 문체부, 태권도계 승부조작 등 불공정·비리 척결: 승부조작 가담자 '체육계 영구추방' 추진, 정책뉴스.
http://www.korea.kr/policy/cultureView.do?newsId=148784026&call_from=naver_news

<부 록>

설 문 지

심판판정과 자기관리행동, 중도포기의도의 관계

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김미소입니다.

먼저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심판판정과 관련하여 심리적, 사회적인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본 설문에는 정답이 없고 좋은 답과 나쁜 답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느끼는 것을 그대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본 설문의 응답은 통계법 13조에 의거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순수한 학술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응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15분 정도 될 것입니다.

귀하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김 미
소

<설문 1> 심판판정 인식

※ 귀하가 인식하는 심판판정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표 안의 해당번호에 "✓", "○" 의 방법으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는 정답이 없으니 솔직한 답변 바랍니다.	전혀 아니 나	아니 나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심판은 소속된 사도의 팀과 관계없이 공정한 판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심판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정한 판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심판은 편파판정 없이 공정한 판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심판은 대표선수, 일반선수 등 특정선수와 관계없이 공정한 판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최근 참가한 경기에서 불리한 판정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심판은 승·패 시 신속한 결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심판들 간의 회의 후 신속한 결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반칙 시 신속한 결정을 내린다.	①	②	③	④	⑤
9. 심판판정은 전반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10. 심판은 지도자의 이의신청 시 빠르게 대처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심판은 매 경기마다 동일한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심판은 매 경기마다 동일한 판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심판은 자신과 동일한 반칙을 상대방이 했을 경우 일관되게 판정을 내린다.	①	②	③	④	⑤
14. 심판은 지도자가 항의를 해도 일관되게 판정을 내린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매 경기마다 태권도 경기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경기 시 심판의 심판판정은 선수들에게 신뢰감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7. 경기 시 심판은 소신 있는 태도로 심판을 본다.	①	②	③	④	⑤
18. 경기 시 심판은 자신감 있는 태도로 심판을 본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품위 있는 심판들의 행동에서 신뢰감을 갖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태권도경기가 심판들 간 승부조작 등이 없는 경기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 2> 자기관리행동

※ 다음은 평소의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컨디션 조절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 설문에는 정답이 없으니 솔직한 답변 바랍니다.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평소에 몸을 아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평소에 체중 조절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평소에 수면 조절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시합이 다가오면 음식 조절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평소에 부상부위 관리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동료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선·후배에게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윗사람들에게 항상 예의를 갖춘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팀 동료들과 사이좋게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항상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 연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평소에 규칙적으로 훈련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평소에 개인훈련을 자주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시합이 다가오면 훈련량을 조절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운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 3> 운동지속 및 중도포기의도, 지도자신뢰

※ 다음은 귀하가 느끼는 운동에 대한 지속여부 및 지도자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 설문에는 정답이 없으니 솔직한 답변 바랍니다.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운동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운동으로는 장래가 불투명해서 그만두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운동으로 성공을 못할 것 같아서 그만두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 운동에 흥미를 잃어서 그만두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5. 운동을 너무 강압적으로 해서 그만두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 마지막으로 귀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성별? ① 남 ② 여
2. 소속? ① 고등학교 ② 대학 ③ 일반
3. 체급? _____
4. 운동경력? 약 ___년 ___개월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